

## “추석 대목 어저나”... 日오염수 방류에 수산물시장 ‘침체’

추석 예약 주문 급감, 못팔고 폐사한 전복 수북  
 원산지 문의 속출...방사능 측정기 구매 고심도  
 “장기 침체 우려...법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해야”

“방류 소식을 기점으로 수산물이 안 팔려 죽을 맛입니다. 추석 대목 앞두고 방류라니 더 착잡하네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광주 동구 남광주수산물시장은 오염수 방류 소식에 침체된 분위기가 엿보인다.  
 전남 완도·무안·보성에서 들어온 전어·꽃게 등 신선한 제철 수산물들이 진열대에 놓여있었지만 찾는 발길은 뜸했다.  
 수산물 시장 입구엔 ‘임대’ 팻말이 붙은 상가 두 곳도 눈에 띄었다.  
 상인들은 “싸게 줄게 가져가”며 지나가는 시민을 향해 가격 할인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선

뜻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한 상인은 빈 장부를 뒤적이며 한숨을 푹 쉬었다.  
 추석을 한 달 앞둔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하고 상심이 크다.  
 이맘때면 시장은 명절 단체 선물 주문으로 바빠지만 최근 방류를 코앞에 두고 주문량이 확 줄어섰다.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장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천석빈(70)씨는 팔리지 않아 폐사한 전복을 견제하며 시름에 잠겼다.  
 천씨는 “명절 대목인데, 기대도 안 한다”며 “명절 한 달 전이면 회사·가정에서 굴비·전복 예약 건이 하루 매출의 70%를 차지하는데, 방

류를 앞두고 주문량이 5%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 “전복 생물이 2주간 팔리지 않아 폐사해 절반을 버렸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오염수 방류 압박을 의식하는 듯 구매 전 방류 시점을 문의하거나 “안심하고 먹어도 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원산지 표를 살펴면서 일본산 여부를 묻는 구매자들도 있었다. 한 상인은 방사능 오염을 문의하는 손님이 부쩍 늘자 방사능 측정기 마련까지 고심하고 있다.  
 홍어를 판매하는 김준호(42)씨는 “오염수 방류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소비 심리는 위축됐다”며 “방류시 수산물 판매 급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걱정했다.  
 상인들은 방류수 위험·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정보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손승기 남광주시장상인회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만 요구해선 안된다”며 “방류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방류 이후 어업 종사자들의 매출 급감에 대비책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하루를 앞둔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수산물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용일 기자

## 출판기념회에 자객공천까지...지역 정가 ‘총성없는 전쟁’

더불어민주당 경선 6개월 앞으로... “시민 표심 잡아라” 분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들 사이에 ‘총성없는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의 중요 풍향계가 될 추석 밥상민심을 겨냥한 입지자들의 표심잡기가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9월3일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광주 서구갑), 9월9일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동남갑), 9월16일계 고검장 출신 박근택 변호사(광산갑)가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동남갑)는 9월6일계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어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더연 정치연구소’(김명진, 서구갑), ‘광주 혁신경제연구소’(정재혁, 광산을), ‘안도길 경제연구소’(안도길, 동남을)에 이어 추가 개설도 이어지고 있다. 조현환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북구을)가 오는 26일 ‘더불어민생경제연구소’를, 같은 단체 이정락 공동대표(동남을)가 27일 ‘광주기반사회연구소’를,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대표(서구을)가 9월22일 ‘소리통연구소’를 각각 열 예정이다.  
 동남갑에 뜻을 둔 유동국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최근 광주 남구 주월동에 포럼 ‘공감과 동행’ 사무실을 개설하고, 얼굴과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지역구 내에서 전배가 굵은 정치인들과의 연대로 본격화되고 있다. 전직 광역·기초의원 중 상당수가 이미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며 지지세 확장에 힘을 모으고 있다.  
 당직 확보전도 치열하다. 직함을 사용할

수 있고, 중요 이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보좌관이나 부위원장, 중앙당 위원 등의 ‘당직 따내기’에 공을 들이는 입지자들이 적잖다.  
 공개경쟁 방식이 아니고 당대표 측근 등 특정 계파 인사들에 집중되다보니 논란도 적잖다. 최근 임명된 당대표 특보진을 두고서는 ‘측근 챙기기’, ‘자객 공천’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을 겨냥한다는 측면에서 “저격 공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오랜 공식 탓에 경선이 본선보다 뜨거울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확고한 권리당원수만 믿고 있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 출판기념회나 토크쇼 등을 통한 컨벤션효과, 당내실세와 연결된 직함, 연구소와 포럼을 통한 정책 제시, SNS 등에 매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교육목적 노랑버스만 가능해지나”

광주·전남 373개교 수학여행 우려

수학여행 등 ‘어린이 전용 노랑버스’ 이용 법제처 해석 후폭풍

초등학교생들이 수학여행 등을 떠날 때 ‘어린이 전용 노랑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에 따라 2학기 ‘대형버스 이용 체험학습’ 등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지역 초등학교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23일 광주·전남도교육청과 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2학기 체험학습·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지역 초등학교는 187개교이다. 전남지역은 186개교 194건의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루코스 체험학습까지 포함하면 500건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학교들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나라장터 등에 ‘2학기 현장학습 학생운송용업체 입찰 공고’를 내고 전세버스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와 경찰청이 “초등학교생들의 교육 목적을 위한 차량 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찰 공고 수정·취소’를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주의 A초교는 다음달 11일부터 학년별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오는 25일까지 45인승 전세버스 53대를 계약할 예정이었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현장학습 일정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초등학교생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전용 통학버스는 중형(25인승) 31대, 대형(45인승) 51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남은 중형 600여대, 45인승 50여대가 운행 중이다.  
 대부분의 차량은 특수학교와 유치원·원거리 학교의 통학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초등학교들이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50여대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비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상무평화공원  
 홍길동 테마파크 야영장  
 장성호 출렁다리  
 장성호 물방울대

## 여름, 지친마음 달래 Go 가을, 여행종아 설레 Go

### 지금 바로 장성으로 Go,Go!

장성군  
**Jangseong**